

HRD 3월의 이슈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 당부
- '내일'을 찾는 중장년의 내일,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 "내일"을 위한 직업훈련과 청년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지원 과정
5,631개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운영
7,500명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참여 청년 모집
551명



1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1.0%

Vol.108
March 2025 **03**

안정적인 고용시장,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부문 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고용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와 경제단체가 협력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하고, 1분기 내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고용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cover story
튼튼한 고용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 권 제108호
발행일 2025년 3월 20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64
구독신청 및 문의 ws0920@hrdkorea.or.kr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HRD 스페셜

- 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 당부
- 05 ‘내 일’을 찾는 중장년의 내일,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 05 ‘내 일’을 위한 직업훈련과 청년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06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HRD 현장

- 07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합니다!
- 07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습니다
- 08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10 “취업, 난 했다” 폴리텍대 8천866명 졸업
- 10 폴리텍대, 중장년 맞춤 교육으로 재취업 길 ‘활짝’
- 11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12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 14 한국기술교육대 ‘신기술·융합 인재양성 콘퍼런스’ 성황
- 15 AI로 디지털 대전환, AI G3 도약을 위한 청년 대상 디지털(AI·SW) 교육 강화 추진
- 16 해외 9개국에 대한민국 청년 일경험(WELL) 기회 제공
- 17 대학생 여러분! 복학 후에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계속 참여하세요!

NCS 뉴스레터

- 18 2025년 직무능력은행 교과 인정 컨설팅 운영기관 모집
- 18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저축·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소개합니다.

고용 BRIEF

- 19 2025년 1월 고용동향 분석

연구 INSIDE

- 20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 20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 21 2025 HRD Trend Report
- 21 ChatGPT의 등장과 공공 HRD의 과제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HRDK 백배 활용법(일학습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 당부



2025년 2월 14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 당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일자리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 경제6단체-정부, 일자리 창출 협약 및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구축 합의
-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 통해 1분기까지 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 1분기 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 뒷받침 - 3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및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은 2월 14일(금) 10시, 경총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 2.14.(금) 10:00~11:00, 경총회관
- 👤 참석자 : (정부) 권한대행, 고용부 장관, 산업부·중기부 차관 (경제단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KDI 분석에 따르면 인구효과(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감효과)는 ('24년) +0.3만명, ('25년) △1.2만명 ~ △6.0만명**

최 권한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회의에 앞서 경제6단체와 고용부·산업부·중기부는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가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고용애로해소 협력체계’)을 구축하여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이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월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 8백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분기 중 SOC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하여 1:1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준다면 정부는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내 일’을 찾는 중장년의 내일,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내 일’을 찾는 중장년의 내일,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문수 장관, 중장년내일센터 방문 및 중장년·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목)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내일센터의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2명),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2명)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고 있는 약 1천만명의 50~60대(2차 베이비부머 1964년생~1974년생, 약 954만명)를 위한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직 등은 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경력전환형 재취업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김문수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우수한 중장년 취업사례들이 더욱 확산되도록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올해 3만5천명, 3년간 14만명의 유망자격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자격 취득 이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둘째 다른 직종으로 이동이 많은 사무직·서비스직 등 중장년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서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천개 발굴하고, 지역대학 등을 통해 채용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한다.

셋째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 중장년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우수모델을 올해 6개 이상 발굴하고,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3년간 4천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김문수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중장년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의 내 일 찾기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시켜 다른 중장년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내 일’을 위한 직업훈련과 청년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내 일’을 위한 직업훈련과 청년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항공분야 공동훈련센터방문 및 기업·청년 현장 간담회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 연수구 소재, 이하 “융합원”)을 방문하여 항공정비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융합원이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올해 5,631개 과정, 22만 6천명의 중소협약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기업(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에 맞는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를 지원**

또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계속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5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혁신훈련을 4만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는 50만명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정부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실시하여 더 좋은 일자리에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❶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개정 전	개정 후
●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❷ **임남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 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육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 ❹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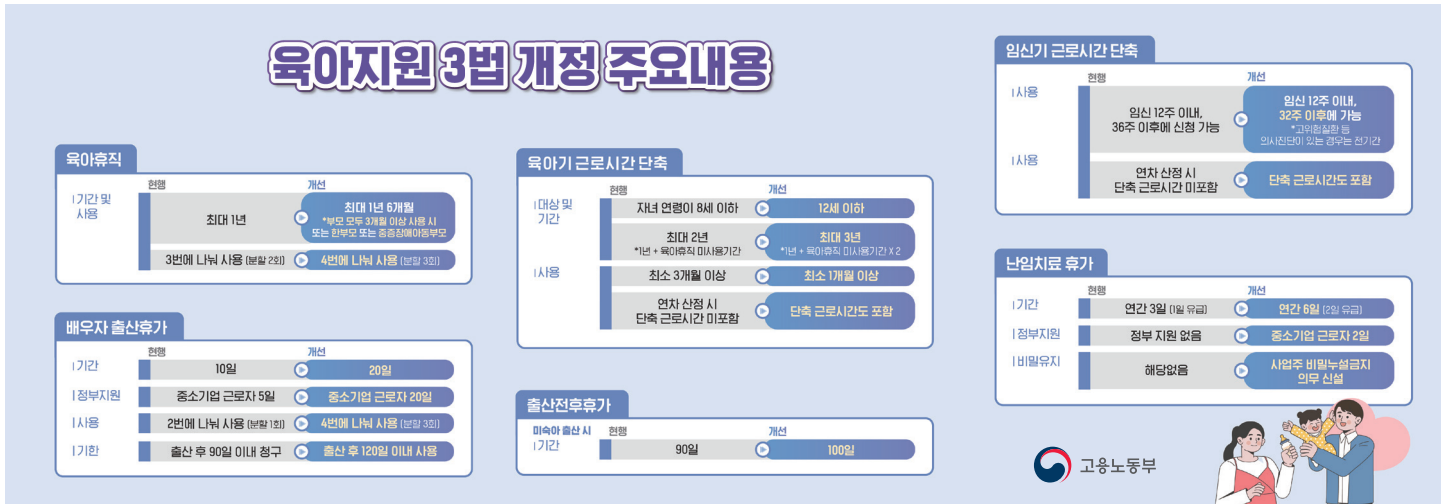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2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훈련 변화와 혁신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 공고(2025.2.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2월 4일(화)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팀 (140여명)을 통해 직업훈련의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한다.

☑️ ❶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새로운 훈련방법의 도입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훈련(PBL)-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도구·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도입 등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과정의 혁신적 전환을 지원한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❷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 신청은 2월 4일(화)~2월 18일(화), 2주간이며, 심사를 거쳐 100개소를 선정*하고 기관별로 2~3회 컨설팅을 지원한다.

* 신규기관 60개소, 경력기관 20개소, 계속지원기관 20개소

올해는 신규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 중 계속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개선이행 점검과 추가적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선진화된 우수 훈련기관으로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컨설팅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습니다



2025년 3월 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10.(월)부터 4.9.(수)까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접수 - 올해는 일자리 취약계층(청년, 신종년 등) 대상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에 초점

(주)포스코 유철중 과장은 제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재무 절감 효과를 달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24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 과장은 “직업능력 개발은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0일(월)부터 4월 9일(수)까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업능력 개발 촉진과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97년부터 시행, '24년까지 총 2,816명 포상**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9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대상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❶사업주, ❷노동자, ❸숙련기술인, ❹직업훈련기관 대표, ❺직업훈련 교원, ❻HRD-자격업무 종사자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www.moel.go.kr>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kjh1004with@korea.kr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올리는 직업능력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서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번 유공 포상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뉴스 · 소식·공지사항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안내」 참조**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5년 2월 17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반도체·자동차 ‘증가’, 섬유 ‘감소’,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 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조선·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4.1%), 반도체(2.2%), 자동차(1.6%)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유지 (0.2%)	증가 (4.1%)	유지 (0.3%)	감소 (-2.3%)	유지 (0.6%)	증가 (2.2%)	증가 (1.6%)	유지 (0.6%)	유지 (-0.5%)	유지 (1.4%)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① 기계: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 전망

- 2023년부터 이어진 기계산업의 내수 감소 추세는 수요 산업의 설비 투자 회복 기대감으로 2025년에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인도, 중동,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로 호조세를 이어가지만 유럽, 중국, 일본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조선: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하여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7.16백만 CGT의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경기하방 기조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되어 글로벌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4년 11.27백만 CGT를 기록했으며,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8%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③ 전자: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IT 수출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창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시장은 AI 기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고급형 · 보급형 AI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2025년에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디바이스 AI 랩탑 PC 등 신제품 출시로 AI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전자산업은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IT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나 해외 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위축으로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도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3%(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④ 섬유: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OEM기업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섬유

-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래유망 산업용 소재의 글로벌 수요 확대로 증설된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내 생산 확대가 기대되지만,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점유율 감소가 우려된다.
- 국내 의류봉제 중심 OEM기업의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 생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⑤ 철강: 내수 부진에도 신흥시장 수출 수요가 증가하며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경기 및 SOC투자 위축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철강수요 개선 및 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8.3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로 철강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고용 감소 가능성 상존

⑥ 반도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반도체 시장은 AI 수요 확산 등으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메모리반도체 양극화 및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수출은 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한 1,350~1,45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 2025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2023년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 이후 시장 회복 및 AI산업 성장 기대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⑦ 자동차: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내수 및 수출이 소폭 축소되지만,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으로 고용이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경기는 2025년 상반기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및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신차 구매 의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글로벌 시장이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수요위축에도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고 다양한 신모델 출시 등으로 생산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⑧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생산이 OLED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노동집약형 생산라인의 해외 투자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AI기능 본격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모바일 기기 수요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LCD 부문은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자동차 등 신시장 성장에도 국내 기업의 OLED 중심의 사업 전환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⑨ 금속가공: 국내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건설업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어 내수 시장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부 SOC 투자 위축으로 인한 건설업 둔화로 내수 시장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불확실성의 장기화도 수출 수요의 감소를 이끌면서 금속가공 업종의 생산량 감소와 신규 투자 지연이 지속되어 금속가공업종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⑩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업황 불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및 미중갈등 심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 및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고용은 전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취업, 난 했다” 폴리텍대 8천866명 졸업



2025년 2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취업, 난 했다” 폴리텍대 8천866명 졸업**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수)부터 전국 폴리텍 39개 캠퍼스에서 졸업식 개최 - 김문수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최초로 폴리텍대학 졸업식 참석

#. 포장박스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김범기(35·남) 씨는 전문 기술 분야로의 전직을 희망해 2023년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스마트정보통신과에 입학했다. 2년간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설계·구축·유지보수, 센서 활용, 보안 등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김 씨는 졸업과 함께 방산기업 노바코스 취업이 확정됐다. 이곳에서 그는 전공을 살려 레이더 장비 및 원격제어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 씨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폴리텍대학 동문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싶다”라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 전기공사업체 한영에너텍 공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순(57·남) 씨는 전기공사 설계·시공을 30년간량 하고 있지만, 평소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공학과에 입학해 2년간 일과 야간 학업을 병행했다. 이 씨는 “연장자로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 데 보람을 느꼈다”라고 캠퍼스 생활을 회상하며, “이제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직장 후배들에게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폴리텍대학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8,866명의 학생이 졸업을 맞았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이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 다승고 1.10.(금) 제11회 졸업식 별도 개최, 졸업생 44명 배출
** 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79.8%, 1차 유지취업률(취업자가 3개월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92.3%<24년 대학정보공시>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 학위수여식(졸업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폴리텍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기에 놓여있으며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는다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라며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믿음직한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학업과 기술 습득에 매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2명에게 직접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며, 지난 시간 배운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지금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리텍대, 중장년 맞춤 교육으로 재취업 길 ‘활짝’



2025년 2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폴리텍대, 중장년 맞춤 교육으로 재취업 길 ‘활짝’**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중년특화과정 올해 7,500명, 내년 1만5,000명으로 확대 운영 - 근로자, 사업자까지 교육 대상 넓히고,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확대

#. 김인찬(44·남) 씨는 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속재료분과 연구직 취업에 성공했다. 16년 6개월간 근무했던 조선선재주식회사를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국제융합전문기술자(IWE)와 금속재료기능장, 용접기사를 보유한 용접 베테랑임에도 휴일이 없이 노력한 끝에 배관기능장, 산업안전기사 등 5개의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다. “울산캠퍼스에서의 시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살고 있다”라며,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705만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에 이어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이른 퇴직을 하며 고용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의 경험과 새로운 분야 지식을 결합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신중년특화과정을 작년 2,550명에서 올해 7,500명, 내년에는 15,0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 교육생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은 60.9%이며, 입학생의 연령대별 비율은 50대가 40.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이상이 36.4%, 40대가 22.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 79.5%, 여성 20.5%로 남성 비율이 높은 편이나, 여성 입학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취업률: 2021년 60.8%→ 2022년 60.2%→ 2023년 61.6%
**여성 입학 비율: 2022년 18.4%→ 2023년 21.1%→ 2024년 22.1%
특히, 자격취득률이 높은 직종은 조라·건축·지계차로 76.4%에 달한다. 서울강서캠퍼스 한식조리과정의 91%가 한식조리기능사를, 아산캠퍼스 공동주택설비전문가과정의 95%가 승강기기능사를 취득해 수요생 대부분이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넓히고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구성했다. 기존 만 40세 이상 구직자에 한정되었던 교육 대상을 근로자, 사업자까지 확대했고, 교육과정도 수요자가 원하는 모듈*을 선택해 필수 제한 없이 들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온·오프혼합교육과 야간·주말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모듈식 운영: 1모듈당 직종별 100~120H으로 편성, 예정바·판금·도색/일반용접·특수용접·냉동배관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재직 중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마련했다”라며 “경력 기반의 전문 교육과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 교육을 통해 중장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전국 38개 캠퍼스에서 신중년특화과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노사발전재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법률·세무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서비스 지원 확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톡 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사·변호사·현장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게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별 근로자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www.nosasos.or.kr) 및 카카오톡 채널 (노동S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이음센터 안내

근로자이음센터는 근로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로자 권익보호 서비스

- 공인노무사 노동법 상담 (상담)
- 기초 노동법 정기 교육 프로그램
- 센터별 근로자 맞춤형 노동법 특화교육 운영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종합서비스

-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 DAY, 세무 DAY 운영 (주1회)
- 법률, 세무 관련 정기 교육 프로그램
-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조정 지원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 임금체불 등 노동법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청서 작성서 등 서류 작성 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 희망자는 중앙년내일센터 고용센터 연결
- 심리지원 희망자는 직업 트러블케어 센터 연결

일하는 국민 소문 서비스 지원

- 정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근로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및 소모임 확대·공간 제공 (심리상담, 노동상담, 생활건강 등)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화·금 10시 ~ 20시 | 토 9시 ~ 17시
서울 광진구 가산디지털 1로 131, BYC하이시티 C동 125호

평택 근로자이음센터

화·금 10시 ~ 20시 | 토 9시 ~ 17시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64, 평택공과로 102호

광주 근로자이음센터

월·금 9시 ~ 18시
광주 북구 광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5층

경주 근로자이음센터

월·금 10시 ~ 20시 | 토 9시 ~ 17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9호

대구 근로자이음센터

월·금 9시 ~ 18시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3층

부산 근로자이음센터

월·금 9시 ~ 18시
부산 서구 대저로 1400, 부산서부고용복지+센터 8층

프리랜서SOS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지원 및 전문가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방법

-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이음센터 내방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분쟁 사안에 대한 상담 의뢰
-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기초상담(사실관계 조사, 법률상담) 진행
- 노무제공자 신청에 따라 전문가 분쟁 조정 지원

*수신확인인 분쟁 조정 지원에 응할 경우 분쟁 해결 지원 개시

분쟁사례 예시

- 보수 지급 지연 등 보수 관련 분쟁
- 일반적 계약 변경 및 계약 외 업무 요구
- 부당한 처우 등 노무 제공 과정에서 겪는 고충

지원 절차

- 상담 의뢰
- 기초상담 (사실관계 조사, 법률상담)
- 분쟁조정 신청
- 피신청인 참여안내, 의견형위
- 분쟁 조정 회의 개최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용, 합의

노무제공자, 노무사, 변호사, 노무제공자, 노무사, 변호사, 전문가, 당사자

상담·대표번호 | 1668-1007

www.nosasos.or.kr

온라인 상담(노동SOS)

10

11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025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사산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
’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24년	132,535명 +6,527명, 5.2% ↑	26,627명 +3,439명, 14.8% ↑	79,368명 +4,832명, 6.5% ↑	18,241명 +2,444명, 15.5% ↑	256,771명 +17,242명, 7.2% ↑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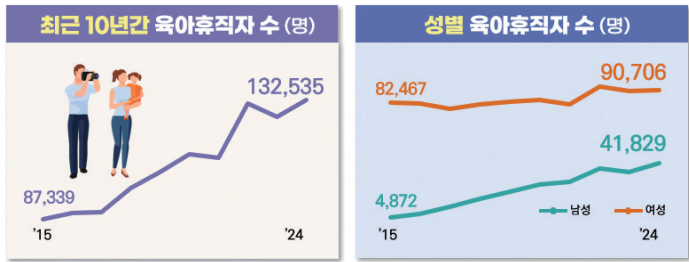
*('20)112,038명→('21)110,555명→('22)131,084명→('23)126,008명→('24)132,535명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15) 4,872명(5.6%)→('17) 12,042명(13.4%)→('20) 27,421명(24.5%)→('22) 37,884명(28.9%)→('23) 35,336명(28.0%)→('24) 41,829명(31.6%)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3년 23,910명 대비 2.1배 증가했다.

*('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300만원 <부부 합산 6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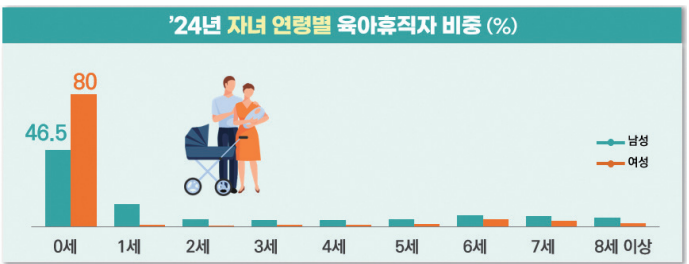
(후)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450만원 <부부 합산 900만원>)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5.1.1.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1.1. 이후 30영업일 기준)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4.1.1.~2.14.	3,420	9,623	13,043
’25.1.1.~2.18.	5,788 (+69.2%)	12,817 (+33.2%)	18,605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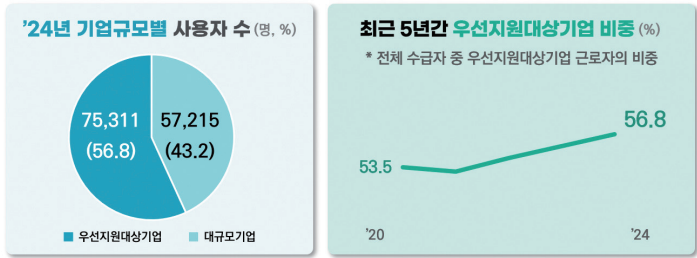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 지속 증가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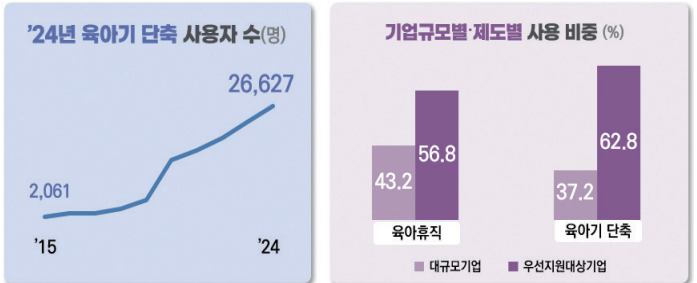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14.8%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0인 미만	10인~30인	30인~100인	100인~300인	300인 이상
24년	6,380 (24.0)	4,539 (17.0)	3,382 (12.7)	2,966 (11.1)	9,358 (35.1)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 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5년 일·육아지원제도 대폭 확대

’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중소기업 1,440만원, 2.5시간)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2.5시간)차치단체: 대체인력 근로자(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120만원)⇒최대 1,840만원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신기술·융합 인재양성 콘퍼런스' 성황



2025년 2월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한국기술교육대 '신기술·융합 인재양성 콘퍼런스' 성황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일(금)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직업훈련교·강사 600명 온·오프라인 참여
- 국내 최고 전문가 '디지털, 첨단산업 및 융합기술' 열띤 강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월 7일(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 및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융합분야 인재양성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과 첨단산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융합분야 인재양성'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배터리를 다룬 2개의 기조 강연과 빅데이터,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융합 분야별 3개 트랙에서 총 12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서하연 전 (주)카카오 부사장(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이 '인공지능(AI)와 일: 인공지능(AI)이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로 빅데이터가 산업과 일하는 방식에 미친 영향,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직업,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 대비 방안을 제시했다.

양제현 (주)에코프로 기술전략실장은 '전기자동차 전환과 K-배터리'를 주제로 전기자동차의 성장둔화 요인과 전망, 전기자동차의 발전을 이끄는 이차전지 시장과 기술 동향, 그리고 K-배터리의 미래에 대해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이어갔다.

이어서 진행된 트랙별 세션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첨단산업 신기술', '융합기술' 3개 트랙으로 나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12개의 강연을 통해 펼쳐졌다.

'디지털 신기술' 트랙에서는 빈준길 뉴로핏 대표이사, 김태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위원, 김준호 전 (주)인텔코리아 전무, 이승호 한기대 교수가 인공지능기술, 정보통신 분야 산업별 역량체계(SQF), 인공지능 응용개발자(AI App Creator)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사례 등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신기술' 트랙에서는 김용재 한기대 교수(WIRobotics 공동대표), 이학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종욱 한기대 교수, 임설희 다쏘시스템 코리아 파트너가 역동적인 로봇·반도체 공정 기술과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의 현재와 미래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소개했다.

'융합기술' 트랙에서는 김대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미래인재실장, 서준호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과장, 이상신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아카데미 팀장, 강성남 SONCEBOZ KOREA 사업총괄이 스마트공장 주요 핵심 기술과 적용사례, 다양한 훈련기법 도입을 통한 첨단산업 맞춤형 융합훈련과정, 신기술·융합 시대 기업의 인재육성 사례, 자율주행 기술 핵심 개념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더불어 콘퍼런스가 개최된 미래첨단기술·에듀테크 기반 학습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의 실습실, 메타 스튜디오, 확장현실(XR) 스튜디오, 스마트러닝 팩토리 등 첨단교육시설에 대한 투어와 시연도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교·강사와 직업교육 훈련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본 콘퍼런스는 올해로 8회를 맞이했으며, 이번 콘퍼런스는 실시간 중계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참석자의 수요를 만족시켰다.

유길상 총장은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디지털 및 첨단산업 신기술 인재 부국(富國)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책대학인 한기대는 초일류 교육모델 개발과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앞장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AI G3 도약을 위한 청년 대상 디지털(AI·SW) 교육 강화 추진



2025년 2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AI로 디지털 대전환, AI G3 도약을 위한 청년 대상 디지털(AI·SW) 교육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부·과기정통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025년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AI·SW) 교육 5만 명 이상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고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2월 5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서울 강남구)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쉬었음' 청년의 증가, 첫 구직기간 증가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먼저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디지털 직업훈련 교육(K-디지털 트레이닝 등) 확대 등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는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전문·인재 양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25년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5만 명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 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청년정보포털(온통청년), 고용24 등에 등록
** 과기정통부 1만 명 이상, 고용부 4.5만 명 이상

그리고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디지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고용부의 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의 수료생이 원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의 심화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의 우수한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등을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고용부·과기정통부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연계 예시

· 고용부 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수료 → 과기정통부 교육 참여 희망 시 인센티브 제공(가점 등)
· 고용부 K-디지털 트레이닝 운영 기업 발굴 → 과기정통부의 교육 시설을 공유하여 훈련 공급 확대
· 과기정통부의 투자로 운영되는 SW중심대학 → 고용부 K-디지털 트레이닝 기관 참여 시 심사 우대

또한 고용부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과기정통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디지털 리더 특강' 등 디지털 교육을 신설·제공하여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시·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디지털(AI·SW) 분야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청년 등
** (과기정통부) 일경험 제공 희망기업 발굴 → (고용부) 일경험 참여 컨설팅 제공

양 장관은 업무협약식 이후 혁신형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그 후, 현장간담회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료생에게 취업 성공사례를 듣고 교육생 및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프랑스 '에콜42'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립된 AI·SW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철학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문제해결식 교육 진행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AI·SW)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밝히며, "청년 일자리,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는 고용부와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과기정통부의 협력을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G3*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한편, 고용부 김문수 장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훈련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하며, "오늘 협약식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9개국에 대한민국 청년 일경험(WELL) 기회 제공



2025년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해외 9개국에 대한민국 청년 일경험(WELL) 기회 제공**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551명에게 ‘사전교육’과 ‘해외 일경험’ 제공할 22개 운영기관 선정

-청년에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운영기관에 사업운영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엘지(LG) 케미컬 미국법인, 씨제이(CJ) 푸드빌 미국법인, 엘에스(LS) 케이블 호주법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부터 해외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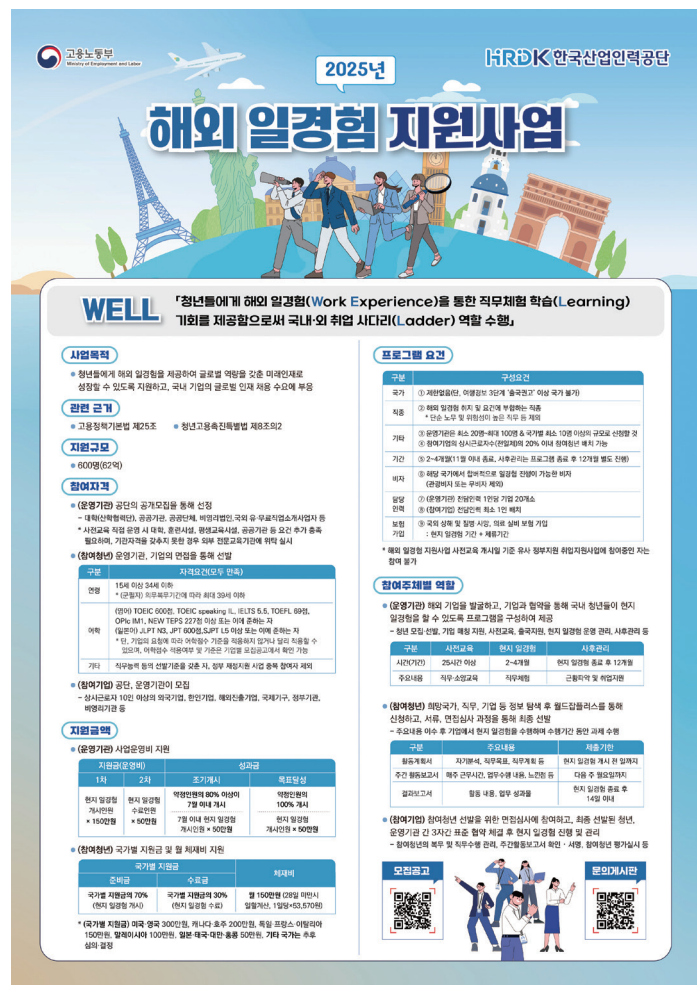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ASA(미국), 왕립동물보호협회(호주), NRW수공업진흥원(독일)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486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참여 청년들의 일경험 사업 종합 만족도는 4.16점(5점 만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024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정○○씨는 “환경에너지 공학을 전공하며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이들과 소통하며 갖게 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의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미국 환경단체에서의 일경험을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 근무 중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여러분! 복학 후에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계속 참여하세요!**



2025년 3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대학생 여러분! 복학 후에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계속 참여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기(既)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종목, 기존 3개에서 201개 전체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학생들의 과점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점평가형 자격 기이스 교육·훈련 인정제』(이하, ‘교육·훈련 인정제’)*의 시범운영(’21~’24년)을 거쳐 인정 대상 종목을 전면 확대(시범운영 3개 종목** → 201개 전종목)한다고 밝혔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입대, 질병·사고 등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한 경우

기이수한 교육·훈련을 인정하는 제도

****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조경기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 (검정형 대비 효용성) 취업률 +14.3%, 취업소요기간 -9.7일, 역량 +5.9%, 현장적용 시간 -1.4월

그동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은 군입대, 질병·사고 등으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학습을 연속해 나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 종목을 기존 3개에서 201개 종목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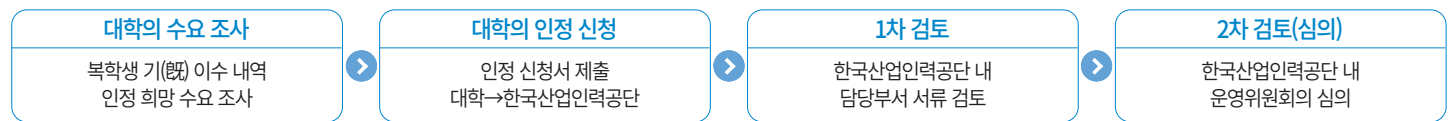
▲ “대학 휴·복학자들은 교육훈련과정에 재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종목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훈련기관 운영기관 담당자)

▲ “대학에서는 보통 (산업)기사 종족 <18개월 과정>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 중인데, 남학생의 경우 통상 1학년 후 군휴학을 하게 되는데 복학 후에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에 재참여가 불가능하여 불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생)

이번 확대로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에 관계없이 기(既)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인대)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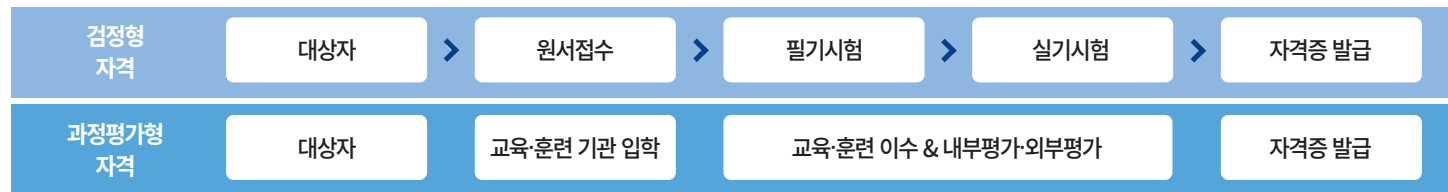
복학생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의 기(既)이수 내역 인정을 희망하는 대학은 매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락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종목 전면 확대는 대학생의 교육·훈련 중도 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청년들이 관망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및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既)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개요

 **사업내용** 군입대, 질병·사고 등 교육훈련기관이 인정하는 휴학의 경우 추가 교육·훈련 없이 기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인정하는 제도

- **신청방법**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생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휴학기간** 휴학으로 인한 과정 중단 최대 기간은 36개월 이내 인정
- **인정횟수** 인당 1회로 제한

※ 단, 반복되는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심의를 통해 인정 횟수 추가 가능

- **외부평가** 재참여한 교육·훈련과정의 종목 편성기준 버전으로 외부평가 응시

- **자격증 표기** 자격증 전면의 교육·훈련기간은 훈련 중단 기간을 포함한 최초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훈련기간으로 하며, - 자격증 후면의 능력단위 표기는 현행 편성기준의 능력단위(필수/선택)으로 기재



NCS 동향



2025년 직무능력은행 교과 인정 컨설팅 운영기관 모집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대학 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24년 기준 동의과학대 등 34개 대학, 438개 교과 인정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서비스되는 정보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게 대부분이지만, 교과 인정 사업은 인정받은 각 대학에서 이수자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교육 이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주체	공단	운영기관	공단	운영기관	운영기관
추진 내용	운영기관 공모·선정 (3~4월)	컨설팅 운영 (5월~8월)	컨설팅 모니터링 (6월~7월)	교과인정 신청·접수 (8월)	사후관리 및 컨설팅결과보고 (9~10월)

교과 인정 컨설팅은 교과 인정을 통해 인정받은 교과 내용을 직무능력 은행에 저축·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교과 인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교과 인정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선정하고, 교과 분석 등을 통해 컨설팅 교과에 맞는 NCS 능력단위를 매칭하거나,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교과 인정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bank.nc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CS 스페셜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저축·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소개합니다.

직무능력은행

아직도 따로 발급받고 계시나요?

이제는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 ▶ 직무능력 시스템을 통해 나의 자격·교육·훈련·경력 정보가 자동으로 계좌에 저축됩니다.
- ▶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계좌 내 직무능력정보는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직무능력 인정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직무능력은행”을 입력해보세요
<https://bank.ncs.go.kr>

자격

- 544종 국가기술자격(검정형, 과정형) 정보
※ 8개 수탁기관 국가기술자격 포함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원전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 일학습병행 자격 정보
- 국방부 자격 12종

훈련

- HRD-Net 직업훈련 과정 이수 정보
- 사업주** 사업주훈련(자체/위탁), 컨소시엄훈련, 지역산업맞춤형훈련
- 개인** 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 KDT 등)
-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훈련, IPP 등

교육

- 대학교 교과인정사업으로 인정된 24개 대학 64개 교과('23년 기준)
- 한국폴리텍대학 위탁교육 정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 고등학생 NCS기반 전문교과 이수 정보(NEIS 연계)

경력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정보 (일용, 상용)
- 국세청(홈텍스) 개인사업자등록 정보
- 국방부 군 경력정보(군간부)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연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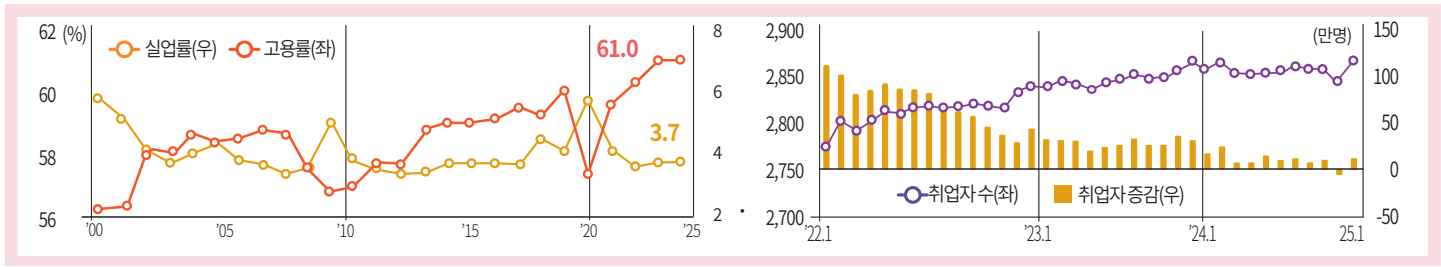
2025년 1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5. 2. 14.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1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률(61.0%) 1월 역대 1위, 경제활동참가율(63.4%) 1월 역대 1위, 실업률 3.7%, 취업자수 +13.5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 61.0%로 전년대비 보합, 15~64세 고용률 68.8%로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63.4%로 +0.1%p 상승 ○ 실업률 3.7% 전년대비 보합
- 취업자수 전년대비 +13.5만명 증가로 2개월만에 증가 전환,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1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대)



- ☑ (산업) 서비스업·농림어업 증가, 제조업·건설업 감소
- 서비스 47개월 연속 증가 지속, 증가폭 확대(+17.7→+34.9만명)
 - 보건복지(+11.9만명) 증가 전환, 공공행정업(+3.3만명) 증가폭 확대
 - 전문과학(+9.8만명)·정보통신(+8.1만명)·교육업(+6.3만명) 증가 지속
 - 도소매(△9.1만명) · 사업시설업(△2.9만명) 감소폭 축소
- 제조 일평균 수출 증가 지속 등으로 감소폭 축소(△5.6만명)
- 건설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폭 확대(△16.9만명)
- 농림 조사주간 평균기온 감소 등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0.7만명)
- ☑ (지위·연령) 상용직 58.9% 1월 역대 최고, 대부분 연령대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22.4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고용無 자영업자 · 고용有 자영업자 모두 감소
- 연령 3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청년층·50대 고용률 하락
 - 청년층 고용률(44.8%, △1.5%p) 하락,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 (71.3%, △1.4%p) 하락하였으나 역대 2위로 높은 수준
 - 청년층 쉬었음(43.4만명, +3.0만명)은 20대 초반 중심 증가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도 인구감소 비 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50대는 고용률 하락하였으나 역대 2위로 높은 수준, 60세 이상은 직접일자리 영향으로 고용률 상승 전환
- ☑ (평가·대응) '25.1월 취업자수는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고용률 역대 최고. 다만, 생산연령인구 감소 · 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
- 서비스업 증가폭이 큰 폭 확대되며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
 - 직접일자리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 · 공공행정 고용 증가폭 확대
- 설명절(1.27~30일) 전 성수품 구매 등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 · 숙박 음식업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
- 다만, 제조업 · 건설업 등 주요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한 모습
- * 취업자 증감(만명): (건설업) 12월△15.7 → 1월△16.9 (제조업) 12월△9.7 → 1월△5.6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효과가 올해부터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하방 위험 등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노력 지속·강화

- ① 「202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신속 추진·주력산업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뒷받침
 - 1분기 중 SOC예산 · 공공기관 투자 등 신속집행하여 건설경기 보강하는 한편, 건설업 일자리 지원 강화
 - 돌봄·교육·항공안전 등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
- ② 직접일자리 신속채용(1분기 90% · 상반기 97%)하고 일자리 TF·민생경제점검회의 등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 지속 발굴·점검
 - (청년)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민관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등 통해 청년층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 (중·소·상·공인)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중장년) ①폐업 자영업자 대상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센터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12월 | 한요셉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술 현황
- 인공지능 도입률과 영향률에 따른 기업, 지역 단위 고용·임금 영향
-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직무 자동화와 일자리 대체 가능성

주요목차

-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와 현재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 실태
- 인공지능 기술과 일자리 자동화 가능성: 인공지능 전문가 및 GPT-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이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년 2월 | 황아람, 김규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예술인재 양성 정책 개요
- 예술계 산업 및 노동 구조
- 고등교육기관 및 국외 예술대학 운영 현황
- 예술인재 양성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 정책·경제·사회·기술적 환경
- 국립예술대학 설립 및 운영 방안·계획

주요목차

- 예술인재 양성 여건 분석
- 예술환경 분석
- 거시환경 분석
- 예술인재 양성 정책 방향

2025 HRD Trend Report



한국생산성본부, 2024년 11월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 HRD Trend Report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기업교육의 2024년 현황과 구체적인 교육요구
- 2024년 급부상 교육주제, 세대별 인기과정 등 교육추이
- 직무환경, 조직문화, 학습전략 등 기업교육 전반 전망
- 2025 HRD 키워드 선정 및 키워드별 대응 전략

주요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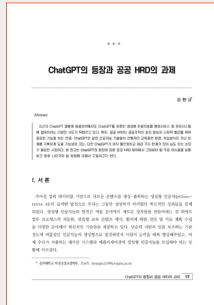
- 771명 직장인들이 전하는 HRD 현황과 전망
-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2025 HRD Insight
- KPC 교육 데이터로 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읽는 2025 HRD Trend

ChatGPT의 등장과 공공 HRD의 과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4년 11월 | 김태현, 강석진, 임정연, 조정윤, 김상돈, 정우찬, 장혜미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ChatGPT의 등장과 공공 HRD의 과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ChatGPT의 공공분야 활용: 행정 개선과 협업 혁신을 향한 길
- ChatGPT 기술의 HRD 혁신: 조직성과와 협업을 뒷받침하는 파트너
- ChatGPT와 협업하는 HRD: 변화하는 조직에 대응하는 개인화된 학습 전략
- 학습자 수용, MZ세대, 공공봉사동기, 워크플로우 러닝 측면에서 공공 HRD 대응

주요목차

- ChatGPT의 공공분야 도입과 정부 행정서비스 접목
- HRD에서의 ChatGPT 활용 가능성
- 공공 HRD의 주요 이슈



- 2.4 2025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 공고
- 2.5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고용부·과기정통부 업무협약
- 2.25 항공분야 공동훈련센터 방문 및 기업·청년 현장 간담회
- 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3.5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
- 3.10~4.9 2025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신청·추천 접수



- 2.17~2.19 2025년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발표심사
- 2.17~2.18 일학습병행 신규사업(외국인·특화대학(KAP)·구직자) 운영기관 간담회 개최
- 2.18~2.21 NCS 개발·개선 수행 신청기관 사업계획 심사
- 2.26 2025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추가선정 심사
- 3.7 2025년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간담회 개최
- 3.10~3.11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기업현장 방문 및 2차 간담회
- 3.10~3.14 2024년도 RSC / ISC 성과평가 실시
- 3.10~4.2 '25년 우수 숙련기술인 신청서류 접수



- 2.7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 신기술융합 인재양성 컨퍼런스
- 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 마이크로러닝 ‘핵심톡톡’ 서비스 시작
- 3.19~3.20 온라인평생교육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신기술훈련관 참여
- 4.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미래 비전 정책 컨퍼런스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3.25~4.3 2025년 제2차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접수



- 2.13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신규 컨소시엄 선정 설명회」
- 2.17 진로연계교육 시도교육청 선도교원 워크숍
- 2.17~2.18 교육부·교육청·직능연 직업계고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 2.20~2.21 2025년 개교 마이스터고 사전 준비 워크숍
- 3.11~3.20 2025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설명회(4개 권역)
- 3.25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제90차 HRD 정책포럼)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
- 3.26~3.28 2025년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정)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 3.19 예정 커리어 Info3월호 발간
- 3.28 '25년 한국지역고용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3.28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2.5.~2.7. 2024학년도 학위수여(수료)식
- 2.5. 제27주년 학교법인 창립기념식
- 2.19. 폴리텍·바이오마이스터고 업무협약식
- 3.5 폴리텍·한국팍리스산업협회 업무협약식
- 3.18 폴리텍·한국로봇산업협회 업무협약식
- 캠퍼스별 ~3월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교육생 모집
- 연중 계속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교육생 모집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HRDK가 알려드릴게요

HRDK 백배 활용법(일학습병행)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백배 활용법

HRDK! 일학습병행이 궁금해요!

HRDK가 알려드릴게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일학습병행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1. 기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	3.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
학습기업 참여신청	심사 및 참여결정	행정 지원 및 컨설팅
4. 고용훈련센터 > 기업	5. 기업 > 학습근로자	6. 학습근로자 > 기업
훈련지원, 사업장 외 훈련 제공 *공동 훈련센터에 한함	채용 및 훈련제공	훈련 참여 (실무교육+이론교육)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직자 유형이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입니다.

단독기업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개별 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재학생 유형이란?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입니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신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 대상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최종학년 대상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

4년제 대학교 최종학년 대상

첨단산업 아카데미

전문대, 4년제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훈련 모델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백배 활용법

HRDK! 일학습병행이 궁금해요!

HRDK가 알려드릴게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학습기업 지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1. 일학습병행 참여신청	HRD-Net (직업훈련포털)에 신청
2.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조회	고용노동부에서 조회
3. 서류·현장 심사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심사
4. 학습기업 지정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정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학습근로자들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A. 워크넷*에서 일학습병행 검색하여 채용 정보 조회를 하세요!

*http://www.work.go.kr

학습근로자 참여 대상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가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4대 사회보험 등에 대한 사항이 보장됨



moel.tomorrow

...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주인공을 찾습니다



신청기간

2025. 3.10.~4.9.

(접수일자 기준)

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지정하여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선정, 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상대상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 업무종사자



포상훈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접수방법

신청인(추천인)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3.10.~4.9.) 내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추천·신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접수기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폴리텍대학(권역별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 (moel.go.kr 접속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5, 7285) 또는 이하의 문의처에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

- 서울청(02-2004-7972)
- 부산청(051-860-2113)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14)
-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78)
- 중부청(032-460-4704)
- 대구청(053-667-6779)
- 한국폴리텍대학(032-650-6736)
- 한국직업능력연구원(044-415-5088)
- 경기지청(031-231-7825)
- 광주 청(062-609-8708)
- 강원지청(033-250-1974)
- 대전 청(042-480-6048)
- 한국기술교육대학교(041-560-2552)